

부활의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 칼빈의 성화론과 윤리론을 중심으로 -

김철영 ■ 교수 ·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머리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다. 종교, 이념, 공동체, 가족,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생활에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의 기본가치들이 붕괴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게 된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가치의 위기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임과 의무가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근거하여 올바른 삶의 방향과 준거를 보이며 제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면서 칼빈의 성화론과 윤리론을 중심으로 부활 신앙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새사람 됨의 의미를 분석해 보고, III장에서는 그에 기초한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살펴보

고자 한다. IV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도덕적 원리를 규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제자도의 윤리를 규정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부활 신앙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사명)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부활의 주님

●부활신앙과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떠나서 그 자신의 신앙을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발생과 심지어 신약성서 자체의 성립도 부활사건에 의해서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신약성서에서 우리와 만나는 그리스도의 선포 전체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전 15:20)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피안에 있는 가능성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셨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 이상의 새로운 가능성 즉, 본래적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한의 담을 허무시고 동시에

무제한한 새로운 가능성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점에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해의 효력을 드러내심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실현되기 시작함을 뜻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즉 ‘그리스도’(Lord)가 되신다는 사실은 처음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다. 주님은 이제 이 공동체의 ‘주인’(master)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칭송된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님’, ‘그리스도’의 칭호는 이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선다. 이것은 이미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고백은 온 인류의 고백이 될 것이다. 공동체의 주님이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고전 8:6).

●새사람 :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요 능력이 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윤리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게 된다. 우리는 믿음과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법률적으로(de

jure)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de facto)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새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일관된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가령 바르트(Karl Barth)는 그의 화해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새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에 대하여 그리고 그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옳다고 여기는 그런 존재이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는 언약의 당사자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는 말씀은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하심이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는 말씀은 그의 성화이다.

따라서 바르트에 따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 가운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에게 거룩한 삶을 주시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점에서 인간의 성화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고 변화이고 새로운 결단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은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신앙에 의해 깨닫는 자에게 주어졌다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간의 성화, 즉 하나님께로 향한 회개는 마치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이고 새로운 결단이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세상을 향한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주

어진 것이다. 그러나 마치 의롭다고 인정받음이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붙잡히고 인지되고, 알려지며, 그리고 고백되지 않는 것처럼 성화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에게만 알려져 있다. 참으로 성화를 알 수 있는 자들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바르트의 주장을 따라 칭의 뿐만 아니라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임을 보게 된다.

칭의와 성화의 기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 그리스도 지향: 칼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 내지 화해의 사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논하고 있다. 성령은 설교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업이 우리 '밖에' 있는 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외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칼빈은 성령이 연결(vinculum)의 역할을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extra nos) 계시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모든 사업은 아무 쓸 데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와 더불어 나눔으로써 그는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우리안에 거하시게 된다.

신이 아무 대가 없이 은총에 의해서 주시는 선물에 관해서 논하려면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에서 시작하곤 한다. 그래야 옳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그가 충만히 지닌 모든 은총은 필연적으로 완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지 않는다면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대한 신의 은총은 그 어떤 무엇이라든가 어떤 능력도 아니며, 우리의 본성의 개선도 아니다. 신이 우리에게 신 자신의 본질의 일부를 주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신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유로 주셨다. 우리가 그를 소유할 때 벌써 만물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우리의 생의 전환을 일으킨다.

●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칼빈은 신앙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일반적인 대답에 동의하면서도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다는 면에서 이해했을 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비밀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총을 향유하게 된다고 보았다.

칼빈은 이 성령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경험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논하기 전에 성령의 본성을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논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 등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만, 성령은 양자의 영이어

서 우리 믿는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롬 8:15)라 부르게 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Alien righteousness)인 까닭에 또한 “생명”이시다. 성령은 이신칭의를 계속 일으킨다. 이런 구원의 의인(義認) 때문에 성령은 “생수”라고 불린다. 즉, 성령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생기와 기력을 회복시키고 양육시킨다.

● **침의:** 칼빈에 의하면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신앙을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양자(養子)로 삼으시고, 이양자됨이 곧 “중생”이요, “새 피조물”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의 신앙을 보시고 은혜로 의롭다 여겨 주신다. 이 칭의된 자가 중생한 자요 양자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구원 얻은 자이다. 이리하여 이 은혜와 신앙으로 기독교적 자유가 확보된다.

따라서 칼빈은 칭의는 회개를 통한 성화를 전제하지 않으며, 인간이 성취한 그 어떤 의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포착하고, 이 의를 옷입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처럼 나타난다고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그의 사랑과 은혜로써 전적으로 용납(acceptatio)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轉嫁)시키신다.

따라서 칼빈에 따르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확신과 결단과 신뢰에 이르는 신앙이 회개에 선행한다. 즉, 칭의가 회개에 선행한다. 신앙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회개라고 본다.

“나는 바로 신앙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신앙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신칭의로 일어나는 회개는 평생토록 반복되어야 한다. 비록 단 한 번 칭의와 회개로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으나, 아직도 원죄의 세력이 남아 있으므로 평생동안 회개와 성화에 이르러야 한다.

● **성화:** 칼빈은 그의 칭의론과 성화론을 직접 연결시키거나 종속시키지 않고 단지 병립시켜 나갔다. 그렇다고 그가 양자가 서로 무관한 것이라든가 또는 이 두 은총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공여할 때 우리는 전적인 구원을 얻는다. 그 때 우리는 가령 죄인이요 죄인으로 남아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의인이다. 즉 두 가지 은총인 칭의와 성화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의와 지혜와 성화와 구속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고로 그리스도는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의롭다고도 아니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은총이 영원하고 풀 수 없는 연결체에 의하여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칭의와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현실이요 그 안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동시에 칭의와 성화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되 그 근거를 다같이 그리스도에 둬으로써 한 편으로 공적으로서 행실의 의의 사

상을 배격하며, 동시에 행실의 의의로서 필연성과 의미를 강조하여 신앙과 행실의 어울배반을 피하고자 하였다. 즉 칼빈에게 있어서 신의 의인(義認)의 심판에는 오직 하나의 근거로서 충분하다. 우리가 위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성화의 보증이기도 하다. 그의 안에는 이 양자 곧 칭의와 종생이 하나이다. 칼빈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사실의 확인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의 일상 생활로 끌어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윤리적 문제로 확대시킨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 **자유**: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생활은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안에서 살도록 부름 받았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반항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리스도인이 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 의한 의를 버리고, 율법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엡 4:13)에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이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인

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뚜렷이 안중에 두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값비싸게 주고사신 바를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자의(恣意)와 혼동할 수 없다. 자유란 이제부터 우리가 단순히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게 봉사케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전적으로 탐식과 사치에 악용하여 악한 사람들을 해할 수 없으며, 방종과 경솔로 인해서 불미한 행동을 하여 악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도 안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악화시킬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그리스도의 제지도**: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와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며 이 세계가 정하는 모든 세력과 이 세계의 권력에서 자유케 하신다. 우리는 주의 봉사를 위해 자유롭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순종 사이에 조화와 일치점을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얻은 자녀의 자격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된다. 칼빈은 성화론에 첨부한 윤리적 추론에다 직접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표제를 붙였다.

그에 의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다”는 진리 안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

야 한다”(벨전 1:15-6)는 성서의 경고에 있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형상을 인치시고, 우리가 그 형상과 같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우리는 그 모범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서는 그 권유를 참다운 근원에서 찾아온다. 우리의 생명이 속해있고 그 생명의 창조자가 되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귀속시키도록 명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래 지음을 받은 그 원상태에서 타락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화목할 수 있게 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본으로 보여 주며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서 그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는 권유를 우리에게 준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려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 이 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에 입각해서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합당하려면 그를 참으로 따라야 하며 그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해 주었다. 하나는 ‘자기 부정’이요, 다른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자기 부정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윤리의 주제는 결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한 기독교적 삶의 형성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장소를 내어주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

도인의 자기 부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웃에게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이를 수 있으며, 그의 의무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롬 12:1)로 드리는 일이며, 또한 타자에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둘째 요소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칼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사이에 십자가를 공유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할 자로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수고와 고통과 불안 속에 생애를 보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며 시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의 아들의 모습에 닮도록 훈련시키신다. 그리하여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우리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항하게 하신다.

우리의 나그네 생활은 언젠가 종식된다. 우리는 언젠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면 또한 그의 영광도 함께 나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영원한 목적에로의 전망이 있으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세적인 삶에로의 추구를 포함한다. 이 양자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다.

칼빈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영원에 대한 전망 사이에 놓여 있는 관계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한다. 하나는 우리에게 부과된 십

자카의 무거움의 독촉을 받아 무상한 현실에서 깜짝 놀라 영원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면류관과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한다. 다른 하나는 미래에 다가올 생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십자가의 무거움은 자못 가벼워지게 된다. 우리와 십자가를 함께 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의 재림을 약속하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경시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로서 장차 오실 한 주님을 갖는다는 사실로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맺음말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도 부활 윤리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의 실재적 내용과 실천적 의미를 추구하는 노력은 교회와 신학에서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매우 결연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분의 영에 힘입어 그분을 지향하고 모범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이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칭의에 기초하여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전 영역이다.

우리(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 무엇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 하는 여러 윤리학적 물음들은 적어도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부활하시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도덕적 논의는 그 의미를 잃고 말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과정은 일종의 "경건의 실천이며, 성화에도 부름받고 있는 삶"이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향해서 규정하고, 날마다 자기 부정(희개)을 통해 십자가를 지려는 제자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